

원장 자당의 은혜

김완순(金完淳)

〈1971~73 수석연구원 · 전 고려대학교 교수〉

나는 1954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교에서 재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IMF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IMF는 미국에서도 좋은 직장이었고, 보수나 담당할 일, 장래성 모두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되어 열심히 일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9년 공군 조종사로 있던 아우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15년 만에 귀국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나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5년 만에 귀국한 나는 오랜만에 은사와 선배, 친구와 친지들을 찾아보았다. 그때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장이신 은사를 만나고 돌아갔는데, 미국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대학교에 자리가 있으니 귀국하라는 편지가 왔다. 그러나 당시의 내 형편은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귀국할 처지가 아니었다. 할 수 없이 사정을 편지로 말씀드리고 단념은 하였지만 아쉬운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때부터 귀국하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커져갔고 아내 역시 나와 같은 심정이었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갔던 일이 잠자고 있던 향수를 일깨웠던 것이다. 그 무렵 김만제 원장이 KDI에서 연구할 한국인 박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왔다.

나는 김 원장의 연락을 받고 호텔로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한국에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마침 재정학을 전공한 박사가 필요한 데 잘되었다며 돌아가서 결정을 한 뒤 통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갑자기 이루게 되었고, 직장은 달랐지만 워싱턴 D.C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박종기 박사와 함께 그해 초가를 KDI 수석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는 반포의 연구원 아파트를 마련할 때까지 KDI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 흠어져 살았다. 우리 집은 김만제 원장 댁 바로 앞에 있었다. 그래서 김 원장의 차를 함께 타고 출근할 때도 많았고, 가정적으로도 큰 도움을 입었다. 김 원장 자당께서는 우리 집을 당신 집처럼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거두어 주셨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 큰 아이가 황달에 걸린 일이 있었다. 먹는 물이 갑자기 바뀐 데서 생겨난 병이라고 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별로 차도가 없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김 원장 자당께서 웅담덩이를 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삶아 먹이면 나을 터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웅담은 값도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운 약인데 당신께서 마침 응급 상비약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며 손수 정성스럽게 달여서 직접 아이에게 먹여 주셨다. 이 약을 먹고 아이의 황달은 신기하게도 깨끗이 나았다. 그때 김 원장 자당께서 배풀어 주신 고마움을 아내와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신세를 진 김 원장에게 고마운 생각과 함께 평생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KDI에서는 불과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고려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겨갔기 때문이다. 1971년에 온 수석연구원 11명

중 가장 먼저 KDI를 떠난 사람으로 나는 김만제 원장을 만날 때마다 항상 미안해 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나를 감싸 주며 KDI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케 해주는 등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 주었다.